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독립기념관과 함께 ‘와우 더 코리아’ 캠페인

2024. 8. 15.



- 광복절 맞아 독립기념관 관람객 815명에게 8.15 기념 티셔츠와 얼음물 전달
- CFS, '동행꾸러미' '와우 더 포레스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지속 전개

2024. 08. 15.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가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CFS는 지난 14일 독립기념관에서 '와우 더 코리아' 나라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정종철 CFS 대표이사를 비롯해 쿠팡 천안센터 및 목천센터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20여 명이 함께 했다.

CFS는 독립기념관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광복의 의미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CFS 임직원들은 관람객들이 정기적으로 독립기념관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 채널 구독 행사를 개최했다. 또 어린이 가족 관람객 815명에게 CFS가 특별제작한 8.15 기념 티셔츠와 얼음물을 나누어 주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독립기념관에 찾아오신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쓴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독립운동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기업과 공공기관의 좋은 협업 사례를 만들어 준 쿠팡플랫폼트서비스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쿠팡 목천센터 직원 조혜성 씨는 “오랜만에 독립기념관에 오니 일상에서 독립운동가분들께 감사함을 잊고 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든다”며 “광복절을 맞아 독립기념관을 찾은 어린이 가족들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 드린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CFS 임직원들은 지역사회와 지구환경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인천시 오류왕길동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60가구에 생필품과 카네이션이 담긴 '동행꾸러미'를 전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와우 더 포레스트'라는 슬로건 아래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